

전근대 일본의 태교지식의 수용과 전개*

- 일본 고전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 미 숙**

[국문초록]

본고는 일본 고전 텍스트에 기술된 태교에 대한 기록을 분석하여, 전근대 일본의 태교지식이 중국으로부터 어떻게 수용되고 전개되는지를 고찰해봄으로써, 태교지식이 정치사회제도의 변화와 맞물려 어떻게 변용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 것이다. 일본 최초의 태교지식의 양상은 『산경』, 『천금방』, 『양생요집』, 『선부경』의 태교 관련 내용을 인용하여 기술한 『이신보』(医心方 권22 제2 『임부수신법』(任婦修身法)을 통해 살펴보았다. 중국 최고(最古)의 산부인과 전문서인 『태산서』의 태교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이신보』의 태교 관련 내용의 핵심은, 태아는 '3개월'까지는 아직 남녀의 성별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자질도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어머니의 행동과 마음가짐에 따라 성향과 자질과 성별이 변화될 수 있다는 '외상내화'(外像內化) 사상이다. 이러한 태교관은 이후 에도 시대의 여성 교훈서와 교육서에도 이어지고 있다.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6).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주제어: 태교, 외상내화, 이신보, 유교, 여성 교훈서
胎教, 外像內化, 医心方, 儒教, 女訓書

또한 전근대 일본의 태교지식에서 주목할 점은 『이신보』 권24 제4 「변녀위남법」(變女爲男法)에 여아를 남아로 바꾸는 여러 방법이 소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남아 선호 사상으로 후대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에도 시대의 여성 교혼서 등에서 직접적으로 남아를 선호하는 기술을 찾아볼 수 없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태아의 성별을 두고 우열을 가리지 않고 논하지 않는 전근대 일본의 태교 관련 기술은 일본 나름의 출산문화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한 의식의 단초는 섭정·관백 정치체제를 배경으로 하는 헤이안 시대의 남녀 선별 선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동아시아 유교 문화와 교류하면서도 일본 나름의 문화를 구축해나가는 전근대 일본 문화의 일단(一端)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태교지식은 에도 시대 때 여성 교혼서와 '온나다이가쿠'(女大学) 등의 유교적인 여성 교육서 등을 통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즉, 전근대 일본에서 태교지식이 확산된 것은 유교의 확산에 힘입은 바가 크며, '태교'라는 지식 또한 유교문화권의 산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머리말

일본의 대표적인 모노가타리(物語, 고소설) 작품으로 11세기 초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794-1192) 때 나온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 「아오이」(葵) 권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좌대신 댁에서는 이렇듯 한군데 마음을 붙이지 못하시는 겐지 님의 마음을 탐탁지 않게 여기시지만, 너무나도 거리낌 없이 행동하시니 말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라 생각해서인지 심하게도 원망하지 않으신다. 아씨께서는 딱한 모습으로 괴로워하시며 불안해하신다. 겐지 님께서는 처음 있는 일인지라 아씨를 어여뻐 여기신다. 모두들

기 빼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불길하게도 여기서서, 이런저런 재계 (齋戒)를 올리신다.(「葵」・2・19-20)¹⁾

이 장면은 『겐지 모노가타리』의 주인공인 히카루겐지(光源氏)의 정치 아오이노우에(葵の上)가 결혼한 지 9년이 되던 해 처음으로 회임한 사실을 기술한 대목이다. 임신하여 몸과 마음 모두 힘들어하는 아오이노우에, 그리고 결혼한 뒤에도 다른 여자들에게 여전히 마음을 주었지만 정치의 임신 사실을 알고 어여빠 여기는 히카루겐지, 너무 기쁜 나머지 동티가 날까 두려워 이런저런 재계를 올리는 주위 사람들의 모습이 기술되어 있다. ‘재계’의 일본어 원문은 ‘쓰쓰시미(つつしみ)로서 ‘근신하며 부정을 피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이다. 텍스트의 두주(頭註)에 따르면, ‘이런저런 재계’는 ‘안산을 기원하기 위한 재계 및 기타’로 해석되어 있다. 헤이안 시대 때 출산은 산모와 아이 모두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²⁾가 많아 회임을 하게 되면 순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또한 천황의 비나 귀족의 정치로서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아이를 출산하는 일은 일가의 번영을 지속시키기 위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궁중에서나 귀족집안에서는 집안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갖은 방도를

1) “大殿には、かくのみ定めなき御心を心づきなしと思せど、あまりつつまぬ御気色の言ふかひなければにやあらむ、深うも怨じきこえたまはず。心苦しきさまの御心地になやみたまひても心細げに思いたり。めづらしくあはれと思ひきこえたまふ。誰も誰もうれしきものからゆゆしう思して、さまざまの御つつしみせさせたてまつりたまふ。”—阿部秋生・秋山虔・今井源衛・鈴木日出男 校注・訳(1995), 『源氏物語 ②』,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21, 東京: 小学館, pp. 19-20. 괄호 안에 권명과 권수, 쪽수를 표기하였다. 이하 『겐지 모노가타리』 및 기타 한국어 번역은 필자에 의한다.

2) 헤이안 시대 때 이처럼 여성이 출산시 사망률이 높은 이유로는, “조혼, 혈족결혼이라는 요인 이외에 당시 귀족여성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비”가 크다. 예를 들어 운동 부족과 남편을 기다리는 여성으로서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임신 중 수많은 금기사항, 의술의 미발달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杉立義一(2002), 『お産の歴史』, 東京: 集英社, p. 66.

강구하였다. 그 방도가 '재계'를 올리는 일이었다.

『겐지 모노가타리』에는 아오이노우에의 회임을 기술한 장면 이외에도 두 군데의 회임 장면에 '쓰쓰시미'가 쓰이고 있다. "음양사들도 처소를 바꾸어 근신하시는 게 좋겠다고 아뢰기에, 저택이 아닌 다른 데 떨어져 있는 것은 불안한지라 친정어머니인 아카시노키미(明石の君)가 거처하고 계신 저택의 가운데 별채로 옮겨드린다"(『若菜上』·4·103)³⁾라는 기술과 "우키후네(浮舟)의 어머니는 교토 집에는 아이를 낳을 딸이 있어 근신하느라 난리법석인지라, 그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쓸쓸하게 다른 거처에서만 지내며 마음을 어루만질 겨를도 없는데다 이 딸 또한 어찌 될까 걱정하였지만 무사히 출산을 하였다"(『蜻蛉』·6·238)⁴⁾라는 기술이다. 전자는 히카루겐지의 딸인 아카시 여어(明石女御)의 출산 관련 기술로서 '처소를 바꾸어 근신'한다는 것은 '가타타가에(方違え)를 가리킨다. 헤이안 시대 때는 음양도의 제신(祭神)으로 길흉화복을 관장하고 나쁜 방위를 막아 지키는 천일신(天一神)이 있는 방위를 막혔다고 하여 꺼리어 피하였는데 이를 '가타타가에'라고 하였다. 후자는 우키후네의 어머니가 우키후네가 사살하였다고 생각하여 '죽음의 부정(死穢)을 탄 몸이기에 출산을 앞둔 다른 딸이 거처하는 자기 집에도 가지 못하고 다른 집에서 지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때 죽음의 부정 등 부정 탄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근신하는 출산을 앞둔 딸의 모습을 통해 난산할까 노심초사하는 이 시대 출산풍습을 엿볼 수 있다.

3) "陰陽師どもも、所をかへてつづみたまふべく申しければ、外のさし離れたらむはおぼつかなしとて、かの明石の御町の中の対に渡したてまつりたまふ。"—阿部秋生・秋山虔・今井源衛・鈴木日出男 校注・訳(1996), 『源氏物語 ④』,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23, 東京: 小学館, p. 103.

4) "かの母君は、京に子産むべきむすめのことによりつづみ騒げば、例の家にもへ行かず、すずろなる旅居のみして、思ひ慰むをりもなきに、またこれもいかならむと思へど、たひらかに産みてけり。"—阿部秋生・秋山虔・今井源衛・鈴木日出男校注・訳(1998), 『源氏物語 ⑥』,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25, 東京: 小学館, p. 238.

이와 같이 헤이안 시대 『겐지 모노가타리』에 기술된 출산을 앞둔 임산부의 근신, 재계는 오로지 출산 자체를 무사히 마치는 것, 아이를 순산하고 산모가 목숨을 부지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순산을 위해서는 재계를 하고 액을 피하기 위해 나쁜 방위를 피하고 산모가 부정을 탈까봐 부정 탄 사람을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음양도(陰陽道)⁵⁾에 근거한 금기와 근신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임산부가 정신적인 안정이나 수양에 힘써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広辞苑』 ‘胎教’)이라는 ‘태교’의 사전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건강하고 영민한 아이를 낳기 위한 산모의 역할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렇듯 일본에서 ‘태교’는 헤이안 시대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아이를, 가부장 제도를 중심으로 한 가계의 존속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존재로 위치” 짓고, “태교 그 자체가 가부장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인 요구”⁶⁾였던 유교이념에 바탕한 가부장제 사회였던 에도 시대(江戸時代, 1603-1867)에 이르러서야 태교는 여성 교육서에 등장하는 등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섭정·관백 정치체제였던 헤이안 시대 또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산은 반드시 필요하였고, 그 시대에 태교 개념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 또한 아니었다. 10세기 후반 중국 의학서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일본 최고(最古)의 의학서인 『이신보』(医心方, 또는 ‘이신포’라고도 읽음) 권22 제2 『임부수신법』(任婦修身法)에 태교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교는 에도 시대에 이르러서

5) ‘음양도’란 “고대 중국의 음양오행설에 기반하여 천문·역수(曆數)·복서(卜筮)·복지(卜地) 등을 다루는 방술. 대보령(大寶令)에 규정되어 음양료(陰陽寮)가 설치되었지만, 차츰 속신화(俗信化)되어 궁정·공가(公家)의 일상을 모노이미(物忌, 재계 또는 기휘)·가타타가에(方違え, 나쁜 방위 피하기) 등의 금기로 좌우하였다.”(『広辞苑』)

6) 全珠樂(1989), 『胎教に関する比較教育文化的考察—近世(李朝、江戸時代)の女訓書を中心に—』, 『教育学論集』 15, 大阪市立大学文学部教育学研究室, p. 47.

야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조선시대 사주당 이씨의 『태교신기』(胎教新記)에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첫째, ‘태’가 가변적인 존재라는 것, 둘째, 태는 어머니와 단단히 연결되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 셋째, 태아기의 경험이 출생 이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⁷⁾이라는 이유로 태교가 중요하다고 하였을 때, 전근대 일본에서 유독 에도 시대 때 태교의 의미가 강조된 이유는 무엇일까.

본고는 일본 고전 텍스트에 기술된 태교에 대한 기록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전근대 일본의 태교지식이 중국으로부터 어떻게 수용되고 전개되는지를 『이신보』 및 에도 시대의 여성 교훈서에 기술된 태교 관련 내용을 검토하며 살펴봄으로써, 태교지식과 문화가 정치사회제도의 변화와 맞물려 어떻게 변용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교이념과 밀착되어 일본사회에 뿌리내린 태교지식의 양상 및 유교와 태교지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일본 태교문화의 연원 및 동아시아 유교문화와 교류하면서 일본 나름의 태교문화를 구축해나가는 전근대 일본문화의 일단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 내 일본문화연구에서 전근대 일본의 태교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일본 내에서 전근대 태교에 관한 연구는 교육학적인 관점과 사상사적인 관점, 그리고 여성사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중 여성 교훈서에 나타난 태교에 주목하여 근세 일본의 태교의 양상을 살피는 논저⁸⁾ 중 본고의 논지와 관련 있는 것은 그 연구 성과를 반영하였다.

7) 이경하(2014), 『본성·양육 논쟁으로 본 『태교신기』—전통 태교론 및 현대 유전학과와의 비교—』, 『인문논총』 제71권 제1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p. 90-91.

8) ○久保田信之(1988), 『江戸時代の人づくり—胎教から寺子屋・藩校まで』, 東京: 日本教文社, ○全玟樂(1989), ○西川勢津子(1992), 『お産の知恵』, 東京: 講談社, ○新村拓(1996), 『出産と生殖観の歴史』, 東京: 法政大学出版局, ○杉立義一(2002) 등.

2. 『이신보』(医心方)에 수용된 일본 최초의 태교지식

『이신보』는 982년 단바 야스요리(丹波康頼, 912-995)가 완성하여 984년 천황에게 헌상한 현존하는 일본 최초의 의학서이다. 30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궁중 의관이었던 단바 야스요리가 중국의 의학서를 발췌하여 한문으로 편술한 것으로, 이 책의 내용은 일본 의학지식의 형성과 후대의 가마쿠라(鎌倉)·무로마치(室町) 시대와 에도 시대의 전문적인 의학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신보』는 의사의 윤리, 의학총론, 각종 질환에 대한 요법으로부터 방중술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21-권23에 태교와 임신·출산을 비롯한 산과와 부인과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⁹⁾

『이신보』 권22 제2 「임부수신법」에는 『산경』(産經), 『천금방』(千金方), 『양생요집』(養生要集), 『선부경』(膳夫經)의 태교 관련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데, 그중 『산경』의 태교 관련 내용을 먼저 보면 다음과 같다.

『산경』에 말하길,

대체로 임신 중에는 고상한 마음가짐을 지니고 불필요한 것이 없는 깔끔하고 깨끗한 방에서 늘 바른 자세로 앉을 것. 서 있을 때는 구불구불한 작은 길을 걷지 않고 반드시 가운데뺨길을 걷는다. 잠을 잘 때는 마음대로 방향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흥미진진하게 사된 빛(邪色)을 보거나 귀를 세워 사된 소리(邪聲)를 듣거나 망언을 입에 담아서 안 된다. 기뻐하거나 화를 내거나 걱정하거나 격렬하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사려 깊게 온화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협조하며 지내면 성인(聖人)이 될 아이를 낳고 불의의 재난을 만날 일은 없다. 태어난 아이가 어리석거나 흠이 있거나 추악하거나 하는 원인은 그 어머니에게 있는 것이니, 이러한 일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9) 이미숙(2013), 「전근대 일본의 '출산 부정'과 '여성 부정'—일본 고전 텍스트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70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p. 192-193.

다고 하였다.

또 『산경』에 말하길,

문왕(文王)을 처음 회임하였을 때 그 어머니는 자세를 바르게 하여 앉고 사언(邪言) 악어(惡語)를 듣지 않고, 자기 자신도 헛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르게 걷고 단정히 앉았다. 그 때문에 성인과 같은 자식을 낳은 것이다. 세상의 현모(賢母)들은 잘 삼가야 한다고 하였다.

또 『산경』에 말하길,

임신 3개월까지는 아직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임부가] 보는 것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기에 왕공후비(王公后妃)나 공주(公主), 바람직한 사람을 보도록 하여 누자(婁者)나 주유(侏儒), 추악한 것이나 병자, 원숭이 등을 보아서는 안 된다. 남자아이를 원하는 자는 활과 화살을 손에 들고 수평을 쏘거나 수말(牡馬)을 타고 들판을 달리게 하거나 호랑이나 표범이나 달리는 말을 구경하라. 여자아이를 낳고 싶은 자는 머리장식이나 귀고리, 허리장식을 몸에 지ներ라. 아름답고 보기 좋은 아이를 원하는 자는 진주나 아름다운 구슬을 자주 보거나 공작(孔雀)이나 잉어를 먹어라. 머리가 좋고 힘센 아이를 원하는 자는 소의 심장이나 보리를 먹어라. 현명하고 어진 아이를 원하는 자는 나쁜 자리에 앉거나 편협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외상에 의해서 내화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⁰⁾

『산경』에서 인용한 태교에 관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0) “凡任身之時端心。正坐清虛如一。坐必端臍。立不耶住。行必中道。臥無橫變。舉目不視邪色。起耳不聽邪聲。口不妄言。無喜怒憂悲思慮。和順。卒生聖子。產無橫難也。而諸生子。有癡疵醜惡者。其名皆在其母。豈不可不審詳哉。又云。文王初任之時。其母正坐不聽邪言惡語。口不妄語。正行端坐。是故生聖子。諸賢母。宜可慎之。又云。任身三月。未有之儀。見物而爲化。是故。應見王公后妃公主好人。不欲見婁者。侏儒。醜惡。瘁人。猿猴。其欲生男者。操弓矢射擊雄雉。乘牡馬走田野。觀虎豹及走馬。其欲生女者。着簪珥。施環珮。欲令子美好者。數視白玉美珠。觀孔雀食鯉魚。欲令子多智有力者。當食牛心。御大麥。欲令子賢良者。坐無邪臍。立無偏行。是謂以外像而內化者也。”—丹波康賴 撰・槇佐知子 訳注(1995), 『医心方』 卷二十二, 東京: 筑摩書房, pp. 49-52.

첫째는 태교가 태어날 아이의 자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좋은 예로 중국의 서주(西周) 왕조의 초석을 놓고 덕으로써 세상을 다스린 성왕(聖王)으로 널리 알려진 문왕 어머니의 태교를 들고 있다. 두 번째는 임신 '3개월'까지 태아는 아직 남녀의 성별도 구분되지 않은 상태이며 그 자질 또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어머니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남녀의 성별이 변할 수 있으며 아이의 성향과 자질이 변화할 수 있다는 '외상내화(外像內化)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산경』은 "수대(隨代)의 서지(書誌)에 언급되어 있을 뿐 중국에서는 산실된 문헌"¹¹⁾으로서, "5세기경 중국 육조시대의 의학자인 덕정상(德貞常)이 집필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산과 전문서이며, 마왕퇴(馬王堆)에서 출토된 『태산서』(胎產書, 기원전 2-3세기)를 발전시킨 것"¹²⁾으로 알려져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태산서』는 기원전 2세기 이전 전한(前漢) 때 성립된 현존하는 최초의 산부인과 전문서이다. 1972년에서 1974년에 걸쳐 중국 호남 성(湖南省) 장사 시(長沙市) 마왕퇴에서 발견된 일가족 무덤 3기에서 나온 백서(帛書)에 쓰인 의서로 현재 약 700자가 남아 있으며 서명은 백서를 정리하면서 붙였다. 『태산서』의 출산 및 태교에 관한 기록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¹³⁾

『산경』이 『태산서』의 내용을 잇고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태산서』에 기술된 태교 관련 내용의 유사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개월째를 시지라고 하는데, (형태가) 마침내 드리워지면서 조금씩 드러난다. 이때에는 아직 형체가 정해지지 않아서, (산모가) 보는

11) 丹波康頼 撰・横佐知子 訳注(1995), 『医心方』 卷二十二, p. 3.

12) 杉立義一(2002), p. 55.

13) 周一謀 지음·김남일, 인창식 옮김(2000), 『고대 중국의학의 재발견』, 서울: 법인문화사, p. 155, p. 161.

사물에 따라 (태아가) 변화한다. 이러한 까닭에 군공대인(君公大人)을 봐야 하며, 난쟁이와 모습이 추한 사람, 원숭이 등을 보지 못하게 한다. 파와 생강, 토끼 죽을 먹지 않는다. 남자아이를 낳고 싶으면 활과 화살을 놓아두고, 수평을 잡고, 숫말을 타며, 숫호랑이를 봐야 한다. 여자를 낳고 싶으면 비녀와 귀걸이를 하고 구슬을 꿰어야 한다. 이것을 내상성자(內象成子)라고 한다.¹⁴⁾

태아가 3개월까지는 아직 형체가 정해지지 않았기에, 이때 산모가 보는 것, 먹는 것, 치장하는 것에 따라 남녀 성별이 결정된다는 『태산서』의 내용은 『산경』에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태산서』의 '내상성자(內象成子)'라는 표현이 『산경』에서는 '외상내화(外像內化)'로 좀더 의미를 분명히 드러낸 표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이신보』 권22 제2 「임부수신법」은 『산경』의 태교 관련 내용을 인용한 뒤, 다음과 같은 『천금방』, 『양생요집』, 『선부경』의 태교 관련 내용을 인용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천금방』에 말하길,

수태하여 3개월은 바깥 사물의 영향에 의해 변화하거나 소질을 이어받는 등 아직 미정의 상태이다. 하여, 임신 3개월 때는 코뿔소나 코끼리, 맹수, 주옥(珠玉), 보물, 현인(賢人), 군자의 높고 뛰어난 덕, 대사(大師)의 예악, 종과 북, 제기(祭器), 군대, 진영(陣營) 등을 보

14) “三月始胎 果隋宵效 當是之時 未有定義(義) 見物而化 是故君公大人 毋使朱(侏)儒 不觀木(沐)候(猴) 不食芻(葱)薑 不食兔羹 □欲產男 置弧矢 □雄雉 承牡馬 觀牡虎 欲產女 佩蠶(簪)耳(珥) 呻(紉)朱(珠子) 是胃內象成子.”(『胎產書』)-김성수(2014), 「조선 전기 태교론(胎教論)의 수용과 전개」, 『인문논총』 제71권 제1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 55.

15) 수나라의 소원방(巢元方)이 610년 저술한 『제병원후론』(諸病源候論)에서는, '외상이변(外象而變)'으로 표현되어 있다.-김성수(2014), p. 56.

고 이름난 좋은 향을 피우고 입으로 시가(詩歌)나 책을 읊조리고 거처를 조용하게 하라. 바르게 잘라지지 않은 음식은 먹지 말라. 깎개가 제대로 깔려 있지 않으면 앉지 말라. 금슬(琴瑟)을 타며 정신과 마음의 평정을 지니고 성정을 부드럽게 하고 기호와 욕망 또한 절도를 유지한다면, 태어나는 아이는 모두 장수하고 무병하다고 하였다.

『양생요집』에 말하길,

부인은 임신을 하게 되면 대소변을 색다른 땅에 가서 봐서는 안 된다. 아이가 거꾸로 나오거나 사람을 죽인다고 하였다.

또 『양생요집』에 말하기를,

임산부가 순록을 보면 눈이 네 개 있는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였다.

또 『양생요집』에 말하길,

임신 3개월인 부인은 남쪽을 향해서 목욕을 해서는 안 된다. 태아가 불안정해진다고 하였다.

또 『양생요집』에 말하길,

임신 3개월 때는 남쪽을 향해서 소변을 봐서는 안 된다. 아이가 농아(聾啞)가 된다고 하였다.

또 『양생요집』에 말하길,

임신 3개월 때는 맞거울질을 해서는 안 된다. 출산 때 거꾸로 나온다고 하였다.

『선부경』에 말하길,

임신하게 되면 북쪽을 향해서는 안 된다. 그 태어난 해의 방향으로 향하거나 대소변을 보면 모친이 난산을 하도록 만든다고 하였다.¹⁶⁾

마키 사치코(槇佐知子)의 『이신보』 역주¹⁷⁾에 따르면, 『천금방』은 산실

16) “千金方云. 凡受胎三月 逐物變化 稟質未定. 故任身三月 欲得見犀象猛獸珠玉寶物 欲得見賢人君子盛德大師禮樂鐘鼓俎豆軍旅陣設 焚燒名香 口誦詩 書居處簡靜. 割不正不食. 麝不正不坐. 彈琴瑟調心神和情性 節嗜欲 生子皆長壽无疾. 養生要集云. 婦人任身大小行 勿至非常之地. 逆產殺人. 又云. 婦孕見麤而生兒 其四目. 又云. 孕婦三月 不得南向洗浴. 胎不安. 又云. 婦孕三月 不得南向小便. 令兒瘡癩. 又云. 婦孕三月 不得兩鏡相照. 令兒倒產. 膳夫經云. 任身勿北向. 向其生年上 大小便 使母難. 一丹波康賴 撰・槇佐知子 訳注(1995), 『医心方』 卷二十二, pp. 54-58.

된 범세영(汎世英)이 편찬한 삼권본(三卷本)이라는 설과 손사막(孫思邈, 581-682)의 『천금익방』(千金翼方, 682)이라는 설이 있지만 아직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책이다. 『양생요집』은 도가 신선의 책으로 알려진 장담(張湛)의 『양생요집』 10권을 이르며, 장담에 관해서는 『후한서』(後漢書)와 『위서』(魏書)에 언급된 부풍평릉인(扶風平陵人)이라는 설과 둔황인(敦煌人)이라는 두 가지 설로 나뉜다. 『선부경』은 당(唐)의 양옥(楊燾)이 편찬한 것으로 차의 품질과 산지, 우열을 논한 책으로 알려져 있다. 선부(膳夫)란 주(周)의 관직명으로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자나 식관(食官)의 장을 말한다.

『천금방』의 태교 관련 내용은, 임신 3개월을 태아가 변화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본다는 점과 산모가 먹고 보고 행동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데 따라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태산서』와 『산경』의 태교 이론의 틀 속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양생요집』 또한 태교의 금기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임신 '3개월을 태아가 변화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본다는 점에서 『태산서』와 『산경』의 틀 속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부경』은 임신 후 방향에 대한 금기와 산모의 대소변에 대한 언급으로 『양생요집』과 궤를 같이 하지만, 태교에 대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임신부의 순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이신보』 권22 제2 「임부수신법」에 기술된 태교 관련 내용은 비록 '태교'라는 표현으로 명확히 개념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후 전근대 일본의 '태교의 기준'¹⁸⁾이 되었으며, 『산경』, 『천금방』, 『양생요집』, 『선부경』을 인용해 기술되어 있지만 그 원천은 현존하는 최고의 중국 산부인과 전문서인 『태산서』의 태교 관련 내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태산서』 등의 의학서에는 태교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17) 丹波康頼 撰・榎佐知子 訳注(1995), 『医心方』 卷二十二, p. 55, p. 56, p. 58.

18) 杉立義一(2002), p. 57.

있지만, 정작 “중국 문헌 중에서 ‘태교’라는 표현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실은 의학 문헌이 아니라 유교 문헌”¹⁹⁾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태교’라는 표현이 처음 명기된 것은 전한(前漢, 기원전 206-기원후 8)의 초기 유교 문헌인 가의(賈誼, 기원전 200-168)의 『가의신서』(賈誼新書)와 『대대예기』(大戴禮記), 『한시외전』(韓詩外傳)이다. 『가의신서』 「태교」 편에 기술된 ‘태교’라는 표현은 “옛날 태교의 도리는 왕후가 회임하여 7개월째는 방에 칩거한다. … 임신 3개월이 되었을 때 왕후가 원하는 음악이 예에 맞는 음악이 아니면 태사(太師)는 악기를 들고 배운 적이 없다고 말한다”²⁰⁾라는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에 맞는 음악’ 즉 예악을 태교할 때 들어야 한다는 구절과 ‘3개월’이라는 시점은 『이신보』에 인용된 『천금방』의 태교 관련 기술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의신서』에는 태교의 대표적인 예로 주(周)의 제2대 왕인 성왕(成王, 기원전 1021-1002?)의 어머니 후비(后妃)가 성왕을 회임하였을 적의 태교²¹⁾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가의신서』의 태교 관련 기술은 『대대예기』 「보전」(保傳) 편과 거의 흡사하며, 『한시외전』 권제9 제1장에 기술된 “나는 이 아이를 회임한 뒤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고 바르게 자른 게 아니면 먹지 않으며 태교를 하였다”²²⁾는 맹모(孟母)의 발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전한 시대 초기의 유교 문헌에 나타난 ‘태교’에 관한 언급은 대표적인 ‘태교’ 관련 문헌으로 인용되고 있는 전한 말기

19) 長谷部英一(2004), 「中国における胎教の思想」, 『技術マネジメント研究』 4, 横浜国立大学技術マネジメント研究会, p. 38. 하세베 씨에 따르면, 의학서 중 ‘태교’라는 표현이 처음 명기된 것은 당대(唐代) 초기 손사막이 편찬한 『비급천금요방』(備急千金要方, 652)이라고 한다(p. 42).

20) “古者胎教之道 王后有身 七月而就蓐室. … 比三月者 王后所求聲音非禮樂 則太師撫樂而稱不習”(『賈誼新書』)—長谷部英一(2004), p. 38.

21) “周后妃 任成王於身 立而不跛 坐而不差 獨處而不倨 雖怒而不詈. 胎教之謂也”(『賈誼新書』)—長谷部英一(2004), p. 38.

22) “吾嬖妊是子 席不正不坐 割不正不食 胎教之也”(『韓詩外傳』)—長谷部英一(2004), p. 38.

의 유향(劉向, 기원전 77-6)이 편찬한 『열녀전』(列女傳)에 기술된 주 왕조의 시조인 문왕(文王, 기원전 1152-1056)의 어머니 태임(太任)의 태교보다도 앞서는 기술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전한 시대 초기 유교 문헌에 언급된 태교의 기술과 『태산서』의 관계에 관하여 하세베 에이이치(長谷部英一) 씨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이상으로 전한 시대의 태교에 관한 자료를 보았는데, 그 특징은 유교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인물(성왕·맹자·문왕)은 그 모친이 태교를 함으로써 덕을 지니게 되었다고 하여 태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즉 '태교'란 '태아에 관한 교화·교육'이라는 의미이며, 그것은 태아에 대해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친을 매개로 하여 모친이 바르게 처신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다. 태교의 목적은 장래에 태어날 아이가 유교적인 덕을 지녀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이며 태교라는 표현은 유교 색이 아주 강한 말인 것이다. … 그러나 태아에게까지 교육을 행한다는 발상은 과연 유교 안에서만 생겨난 것일까. … 유교에 있어서의 태교는 초기 유교에는 보이지 않고 전한 초기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한편 『태산서』는 아마도 진대(秦代, 기원전 221-206)에서 한대(漢代) 초기에 기술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역시 모친에게서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발상은 당시 의학의 최신 이론이었다고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일부 유가(儒家)는 그 최신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아이의 교육을 태아에게까지 소급시킨, 즉 모친을 매개로 하여 태아를 교화·교육하여 장래 유교적인 덕을 지닌 인물을 만들려고 하는 '태교'라는 새로운 사상을 생각해낸 것은 아닐까.²³⁾

『태산서』라는 의학서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태교에 관한 내용이 유가에 의해 유교적인 덕을 지닌 인물을 낳기 위한 방편으로 '태교'라는 사상

23) 長谷部英一(2004), pp. 39-40.

으로 개념화되었다는 하세베 씨의 지적은, 유교의 확대와 더불어 일본 사회에 뿌리 내린 전근대 일본의 태교지식을 이해하는 데도 시사적인 견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헤이안 시대 때 임신 '3개월' 이후의 유산은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로 30일간 기휘(忌諱)하도록 규정한 율령의 죽음과 출산 부정, 즉 사예(死瀆)와 산예(産瀆)의 규정은, 『태산서』에서 시작되어 『이신보』에 기록된 태아가 '3개월'까지는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기술과 맞물려 흥미로운 대목이다.

현재 헤이안 시대의 축예(觸穢) 규정은 『엔기시키』(延喜式, 927년 성립, 967년 시행) 「임시제」(臨時祭)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규정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凡觸穢惡事應忌者. 人死限卅日. 自葬日始計 産七日. 六畜死五日. 産三日. 鷄非忌限 其喫穴三日. 此官尋常忌之. 但當祭時. 餘司皆忌.

凡弔喪. 問病. 及到山作所. 遭三七日法事者. 雖身不穢. 而當日不可參入內裏.

凡改葬及四月已上傷胎. 並忌卅日. 其三月以下傷胎忌七日.²⁴⁾

『엔기시키』에서 규정된 축예의 대상은 죽음과 출산, 이장(改葬)과 유산(傷胎)이다. 사람의 경우 죽음의 부정을 댔을 때는 30일간, 출산 부정을 댔을 때는 7일간, 이장할 때는 30일, 4개월 이상의 유산일 경우에는 30일간, 3개월 이하의 유산일 때는 7일간 근신하며 부정을 씻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만 '3개월' 이상의 태아의 경우에는 사람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30일간의 근신을 통해 부정을 씻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즉 "임신 4개월 이후의 태아는 근신 규정에 관해서는 이미 태어난 자, 독립

24) 尾留川方孝(2009), 「平安時代における穢れ觀念の変容—神祇祭祀からの分離—」, 『日本思想史学』 第41号, 日本思想史学会, pp. 57-58에서 재인용.

된 인격을 지닌 자²⁵⁾로 간주되고 있었던 것이다. 헤이안 시대 때 태교와 관련된 규정이나 가르침 등은 다른 문헌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엔기시키』에서 규정된 축예 규정 중 임신 ‘3개월’을 기준으로 한 유산 부정의 근신 일수 규정을 통해, 중국의 『태산서』에서 비롯된 『산경』 등의 태교 관련 내용을 수용한 『이신보』 등에 기술된 태아에 대한 지식이 헤이안 시대 때도 사회 일반에 일정 정도 공유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전근대 일본의 ‘변녀위남’과 ‘남녀 선별’

그런데, 전근대 일본의 태교 관련 지식의 원천인 『이신보』 권22 제2 「임부수신법」의 인용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태아의 변화 가능성의 시점으로서 ‘3개월’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중 ‘남녀 선별 출산법’에 관한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른바 ‘여자를 바꾸어 남자로 만들다’라는 ‘전녀위남법(轉女爲男法)에 관한 취지로 기술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임신 3개월까지는 아직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임부가] 보는 것에 따라 변화한다. … 남자아이를 원하는 자는 활과 화살을 손에 들고 수평을 쏘거나 수말(牡馬)을 타고 들판을 달리게 하거나 호랑이나 표범이나 달리는 말을 구경하라. 여자아이를 낳고 싶은 자는 머리장식이나 귀고리, 허리장식을 몸에 지ներ라”라는 기술에는 남아와 여아를 원할 때라는 조건을 제시해 ‘남녀 선별’을 드러내고 있을 뿐 ‘남아 선호’ 사상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이신보』의 태아에 대한 인식은 권22 제1 「임부맥도월금법」(任婦脈圖月禁法) 중 “임신 3개월을 시태(始胎)라고 한다. 이 시기에는 아직 [남녀 어느 쪽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임부가] 보

25) 新村拓(1996), p. 76.

는 것에 따라 어느 쪽으로도 변화한다”²⁶⁾라는 임신 ‘3개월’에 관한 기술에도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신보』에도 여아를 남아로 바꾸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신보』 권24 「점상」(占相) 편 제4에 「변녀위남법」(變女爲男法)이라는 항목으로 기술되어 있다. 『병원론』(病源論), 『산경』, 『갈씨방』(葛氏方), 『집험력』(集驗力), 『천금방』, 『녹험방』(錄驗方), 『침중방』(枕中方), 『영기방』(靈奇方), 『여의방』(如意方) 등 중국 의학서의 기술을 인용한 ‘변녀위남법’의 내용은 약 복용 등 의학적인 조치와 미신적인 여러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남아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기한은 권22 제2 「임부수신법」과 마찬가지로 ‘3개월’이다.²⁷⁾

그런데 이러한 남아 선호 사상은 후대로까지 광범위하게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교이념을 통치이념으로 삼고 있다는 에도 시대 때 태교 관련 기술을 수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 교훈서²⁸⁾에서 이러한 ‘남아 선호’와 ‘전녀위남법’에 관한 기술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에도 시대 전기의 대표적인 산과 양생서(産科養生書)인 가쓰키 규잔(香月牛山)의 『후진고토후키구사』(婦人壽草, 1692)에 기술된 태교 관련 내용을 보면, 『이신보』와 마찬가지로 ‘외상내화’의 관점에서 태교를 소개하고 있으면서도 「전녀위남법」(轉女爲男の方)이라는 항목에서, “임신 3개월까지의 태아에게는 성별이 없고 그 기간 중에 전녀위남(여자를 바꾸어 남자로 만든다) 법을 행하라고 하는 중국 의서 등을 인용해 기술한 뒤, 이것은 전부 오류이며 남녀의 성별은 이미 수태 지점에서 정해졌다며 태아는 처음부터 형태가 갖춰진 것이라는 인식이 드러나 있”²⁹⁾어, ‘전녀위남’

26) “懷身三月名曰始胎。當此之時未有定儀。見物而化。”—丹波康賴 撰・槇佐知子 訳注(1995), 『医心方』 卷二十二, p. 16.

27) 丹波康賴 撰・槇佐知子 訳注(1994), 『医心方』 卷二十四, 東京: 筑摩書房, pp. 63-77.

28) ○山住正己・中江和恵 編注(1976), 『子育ての書 1』, 東洋文庫 285, 東京: 平凡社, ○石川松太郎 編(1977), 『女大学集』, 東洋文庫 302, 東京: 平凡社에 수록된 여성 교훈서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을 비판하는 관점을 드러내기까지 한다.

이와 같은 전근대 일본의 태아에 대한 인식은 조선 시대 허준이 왕명을 받고 언해(諺解)하여 편찬한 산부인과 계통의 의학서인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産集要, 1608)나 한글로 된 가정실학백과라 할 수 있는 빙허각 이씨(憑虛閣 李氏, 1759-1824)의 『규합총서』(閨閣叢書) 등에 “태아의 성별을 예측하는 민간의 속신과 여아를 남아로 바꾸어준다는 ‘비법’”이 기술되어 “석 달까지는 아직 남녀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방술로 딸을 아들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은 당시로서는 의학 지식³⁰⁾이었을 정도로 태아의 변화 가능성을 ‘전녀위남법’으로 연결시키는 조선 시대의 예와 비교해보았을 때 주목할 만하다.

단, 여성을 부정하게 보는 불교의 여성관이 반영된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 1192-1333)의 의학서에는 ‘전녀위남’에 관한 기술이 보인다. 가마쿠라 시대 진언밀교(眞言密敎)의 학승인 겐나(劍阿, 1261-1338)가 편찬한 책으로 단독 산과 전문서로서는 현존하는 일본 최고(最古)의 『산세이루이주소』(産生類聚抄)(1318년 이전)에는 「여자를 바꾸어 남자로 만들다」(女ヲ転ジテ男ト成ス)라는 장이 있다. 이 책은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은 60여 불전에서 출산에 관한 제설을 인용해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권은 『이신보』에서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요점을 발췌 번역하여 실고 있다. 이 중 상권 제2장인 「여자를 바꾸어 남자로 만들다」에서는 천수다라니경(千手陀羅尼經), 약사칠불본원경(藥師七佛本願經), 전녀신경(轉女身經), 불설칭양법불공덕경(佛說稱揚法佛功德經) 등의 경전을 들고 있다. 이는 “인도든 중국이든 가독(家督)을 잇는 것은 남자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생아가 남아이기를 바랐다는 현실적인 요청과 불

29) 新村拓(1996), p. 81.

30) 이경하(2013), 「불임을 치료하고 아들 낳는 비법을 기록하다: 『규합총서』와 『태교신기』가 전하는 임신과 출산」, 『실용서로 읽는 조선』(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 글항아리, p. 213.

교에서는 여성에게는 오장(五障: 범천, 제석, 마왕, 전문성왕, 부처 다섯 가지는 될 수 없음)이 있기 때문에 '변성남자'(變成男子)라고 하여 부처의 자비로써 여자를 남자로 바꾸게 하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³¹⁾으로 보인다. 또한 가마쿠라 시대 말기 가지와라 쇼젠(梶原性全, 1266-1337)이 저술한 가나 문자 최초의 의학서인 『돈이쇼』(頓医抄) 권30 제3 「전녀위남법」에도 임신 3개월까지는 남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전녀위남술'을 실시하라는 기술이 있다.³²⁾

출산 시 남아·여아를 각각 선별하기는 하지만 무조건 남아만을 선호하지는 않는 일본의 출산문화는, 비록 천황가나 상류 귀족 집안의 사례에 국한되는데다 정치색을 강하게 띠기는 하지만, 헤이안 시대의 여러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헤이안 시대의 역사 모노가타리인 『에이가 모노가타리』(栄花物語)에는 후지와라 미치나가(藤原道長, 966-1027)의 부인 린시(倫子)가 988년 장녀 쇼시(彰子, 988-1074)를 출산하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있다.

이러던 중 좌경 대부(左京大夫) 나리의 부인께서 산기를 느끼고 괴로워하시기에, 독경과 가지기도를 드리는 승려들은 물론이고 영험 있다고 소문난 승려들을 불러 모으느라 난리법석이다. … 이렇듯 대단히 난리법석을 피웠지만 참으로 순탄하게 아주 심하게 괴로워하지도 않았던 채 경사스럽게도 여자 아기씨가 태어나셨다. 이 일가는 처음으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황후 감으로 대단한 일로 생각하시기에, 큰 나으리께서도 기쁨을 거듭 말씀하신다.³³⁾

31) 杉立義一(2002), p. 79.

32) 新村拓(1996), pp. 75-76.

33) “かかるほどに、この佐京大夫殿の御上、気色だちて悩まう思したれば、御読経、御修法の僧どもをばさるものにて、験ありと見え聞えたる僧たち召し集めののしる。… さていみじうののしりつれど、いと平らかに、ことにいたうも悩ませたまはで、めでたき女君生れたまひぬ。この御一家は、はじめて女生れたまふをかならず后がねといみじきことに思したれば、大殿よりも御よろこびたびたび

이때 태어난 쇼시는 그 뒤 열두 살인 999년에 이치조 천황(一條天皇, 재위 986-1011)의 비로 입궐하여 중궁(中宮)이 되어 장차 황위에 오르는 황자를 둘이나 출산하여, 당시 좌경 대부였던 아버지 미치나가가 헤이안 시대 섭정·관백(攝政·關白) 정치체제에서 최고의 권력을 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쇼시의 출생은 당시의 섭정이던 조부 후지와라 가네이에(藤原兼家, 929-990)에게도 크나큰 기쁨이었다. 즉, 쇼시라는 여아의 출생은 헤이안 시대의 섭정·관백 체제 하에서 후지와라 씨가 계속 정치적인 실권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일로 일가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헤이안 시대 귀족 여성들은 딸을 낳게 해달라고 관음 신앙의 영험으로 유명한 하세데라(長谷寺)나 이시야마데라(石山寺), 기요미즈데라(清水寺) 등으로 참배를 갔다. 후지와라 가네이에의 부인 중 한 명으로 미치쓰나(道綱)라는 아들 하나만을 낳았던 『가게로 일기』(蜻蛉日記)의 작자 미치쓰나의 어머니 또한 거듭하여 절과 신사로 참배를 하러 갔는데, 그 기원 목적 중의 하나는 자식, 특히 딸을 낳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³⁴⁾

상류 귀족이 장차 천황의 비로 들여보낼 생각으로 딸의 출생을 기뻐하는 장면은 『겐지 모노가타리』 『미오쓰쿠시』(湊標) 권에 기술된 히카루겐지의 딸 아카시노히메기미(明石の姫君)의 탄생 장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재상 중장(宰相中將)은 권중납언(權中納言)이 되신다. 그 넷째 아씨 사이에 낳으신 아가씨는 열두 살이 되셨는데, 궁중에 입궐시키겠다고 애지중지 키우신다. … 여러 부인들 소생의 자제들이 아주 많이 잇따라 태어나면서 보기에다 떠들썩해 보이는 것을 겐지 대신께서는 부럽게 여기신다. … 삼월 초순경 이맘때쯤이지 않을까

聞えさせたまふ。—山中裕・秋山虔・池田尚隆・福長進 校注・訳(1995), 『栄花物語 ①』,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31, 東京: 小学館, pp. 156-157.

34) 미치쓰나의 어머니 지음·이미숙 주해(2011), 『가게로 일기: 아지랑이 같은 내 인생』, 파주: 한길사, p. 154, p. 163.

짐작되시기에 남 몰래 마음 졸이시다 사자를 보내셨다. 금방 갔다 와서 말하길, “열엿새날에 태어나셨습니다. 여아이신데 순산하셨습니다”고 아뢴다. 오랜만에 본 자식인데다 신기하게도 여자아이라고 생각하시니 보통 기쁨이 아니다. 어찌하여 교토(京都)로 불려와 출산을 시키지 않았는가 하고 아쉽게 여기신다(「濞標」・2・283-285).³⁵⁾

위의 인용은 히카루겐지가 권중납언으로 승진한 친구이자 처남인 두중장(頭中將)의 자식 복을 부러워하는 장면이다. 자신은 아들인 유기리(夕霧) 하나밖에—실제로는 후지쓰보 중궁(藤壺中宮) 사이에 낳은 황자가 있기는 하지만—없는 데 비해, 두중장에게는 여러 부인들 소생의 자식들이 많은데다 입궐을 시키려고 마음먹고 있는 정치 소생의 딸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히카루겐지의 성에 차지 않은 마음은 아카시노키미(明石の君)가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다. 자신의 뒤를 이어 정치를 할 아들은 이미 있었던 터라 천황의 비로 들여보낼 딸의 출생은 바라 마지않던 일이었던 것이다. 그렇게도 귀한 딸이기에, 그 어머니 아카시노키미를 오늘날 효고 현(兵庫縣) 남부지역인 아카시(明石)에서 교토로 불려와 출산하도록 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느끼게 된 것이다. 히카루겐지의 바람대로 그의 딸 아카시노히메기미는 훗날 입궐하여 천황의 비가 되어 황자를 둘이나 낳게 되어 히카루겐지 일가의 영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하지만, 상류 귀족이라 하더라도 딸이 태어난 다음에는 아들을 원하였다.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계

35) “とりわきて宰相中将、権中納言になりたまふ。かの四の君の御腹の姫君十二になりたまふを、内裏に参らせむとかしづきたまふ。… 腹々に御子どもいとあまた次々に生ひ出でつつ、にぎははしげなるを、源氏の大臣はうらやみたまふ。… 三月朔日のほど、このころやと思しやるに人知れずあはれて、御使ありけり。とく婦り参りて、『十六日になむ。女にてたひらかにものしたまふ。』と告げきこゆ。めづらしきさまにてさへあなるを思すにおろかならず。などで京に迎へてかかることをもせさせざりけむと口惜しう思さる。”—阿部秋生・秋山度・今井源衛・鈴木日出男 校注・訳(1995), 『源氏物語 ②』, pp. 283-285.

승시켜 가계의 안태(安泰)를 위하여 남자가 필요³⁶⁾하였던 것이다.

상류 귀족이 천황의 비로 입결할 가능성이 큰 딸의 출생을 귀히 여긴 데 비해 막상 그 딸이 궁중에 입결한 뒤에는 천황의 보위에 오를 수 없는 황녀의 출생은 주위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쇼시보다 먼저 이치조 천황에게 입결하였던 사촌언니 데이시 황후(定子皇后, 976-1000)는 황녀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헤이안 시대 여성의 출산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데이시의 부친인 후지와라 미치타카(藤原道隆, 953-995)는 쇼시의 부친인 미치나가의 큰형으로 정치적 경쟁자였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몰락해가는 친정 집안 때문에 시름에 잠겨 있던 데이시는 이미 아쓰야스 친왕(敦康親王)을 낳은 상태였다. 『에이가 모노가타리』에는 데이시의 황녀 출산에 대해 “여아이신 게 아쉽지만”(女におはしますを口惜しけれど)³⁷⁾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아쉬워하는 주체는 명확하지 않지만 황후의 출산 시 남아를 선호하는 것은 천황의 보위에 오를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 때문에 당연히 당대의 공통인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³⁸⁾ 『헤이케 모노가타리』(平家物語) 권3 「사문」(敎文)에도 도쿠코 중궁(徳子中宮)이 회임하였을 때 천태종(天台宗)을 총괄하는 엔라쿠지(延暦寺) 주지인 가쿠카이(覺快) 법친왕(法親王)이 ‘변성남자의 법’(變成男子の法)을 구사하고, 친정아버지인 다이라 기요모리(平清盛)가 생령과 사령을 위무하기 위하여 여러

36) 服藤早苗(1991), 『平安朝の母と子』, 東京: 中央公論社, p. 109.

37) 山中裕・秋山虔・池田尚隆・福長進 校注・訳(1995), 『栄花物語 ①』, p. 325.

38) 『무라사키시키키부 일기』(紫式部日記)에는 쇼시 중궁이 뒷날 고이치조 천황(後一條天皇, 재위 1016-1036)으로 즉위하는 아쓰히라 친왕(敦成親王)을 결혼 9년 만인 1008년 출산하는 장면과 축하 행사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당연히 아쓰히라 황자의 출생은 후지와라 미치나가의 정치적 변명을 약속하는 경사스러운 일이었다.— 藤岡忠美・中野幸一・犬養廉・石井文夫 校注・訳(1994), 『和泉式部日記 紫式部日記 更級日記 讃岐典侍日記』,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26, 東京: 小学館, pp. 134-150.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³⁹⁾

이러한 헤이안 시대의 정치적인 권력의 향배에 영향을 미치는 남아와 여아의 출산을 둘러싼 반응은 후쿠토 사나에(服藤早苗) 씨의 지적대로, “천황의 비로 입궐시키기 위해 부인에게는 우선 딸을, 그리고 입궐한 딸에게는 황위 계승자로서의 황자를 원하는, 입장에 따라 남녀를 골라 낳는 것이 요구”⁴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헤이안 시대 상류 귀족의 남아·여아 선별 선호는 섭관 정치체제 하에서 후지와라 씨 집안의 영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선택이었던 것이다.

나아가, 천황가와 상류 귀족들의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남아만을 선호하지 않은 고대 일본의 출산문화는, ‘이에’(家) 제도가 확립되어 후사를 이을 남아의 존재가 필요하였던 에도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져 내려왔다. 딸만 있는 집안이라 하더라도 ‘사위를 양자’(婿養子)로 들여 집안을 잇게 하는 일본의 풍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르고 있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남녀 모두 가문의 존속을 위해 필요하였던 고대의 출산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작자 미상의 에도 시대 여성 교훈서인 『온나카쿤』(女家訓, 1683)은 나카에 후지키(中江藤樹, 1608-1648)의 『가가미구사』(鑑草, 1647)라는 여성 교훈서를 바탕으로 하여 저술되었다고 알려진 책이다. 이 책에 기술된, “제일의 보물이라는 것은 대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마음속에 명덕(明德)이라고 이름 붙은 본래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주(寶珠)가 있다. 이것을 성명(性命)의 보석이라고도 하고 또는 여의보주라고도 한다. 이것은 천하제일의 보석으로서 상천자(上天子)로부터 하 만민(下萬民)에 이르기까지, 남자·여자의 차별 없이 몸에 함께 갖춰 지닌 보석이기에, 성인이라고 하여도 많은 법이 없고 범인이라 하여도 적은 법은 더더욱 없다”⁴¹⁾라는 구절은, 에도 시대

39) 市古貞次 校注・訳(1994), 『平家物語 ①』,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45, 東京: 小学館, pp. 186-187.

40) 服藤早苗(1998), 『平安朝女性のライフサイクル』, 東京: 吉川弘文館, p. 24.

여성 교훈서에 나타난 남녀의 차별이 아닌 구별 의식의 실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4. 에도 시대 여성 교훈서에 나타난 태교지식

그렇다면, 전근대 일본에서 『이신보』에 수용된 태교 관련 내용이 '태교'라는 용어로 개념화되어 확대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그 실제적인 모습은 에도 시대 전기인 17세기 중반에 등장한 여성 교훈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카에 후지키의 『가가미구사』(1647), 나카무라 테키사이(中村揚齋, 1629-1702)의 『히메카가미』(比売鑑, 1661), 이노 고켄(稻生恒軒, 1610-1680)의 『이나고구사』(いなご草・螽斯草, 1690), 나무라 조하쿠(苗村丈伯, 1674-1748)의 『온나초호키 대성』(女重宝記大成, 1692), 나루세 이사코(成瀬維佐子, 1660-1699)의 『가라니시키』(唐錦, 1694? 성립, 1800 간행)가 그것이다.

에도 시대의 여성 교훈서 중 '태교'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명기된 것은 현존하는 여성 교훈서 중에서는 에도 시대 초기인 1647년 나카에 후지키가 집필하여 간행한 『가가미구사』라고 할 수 있다. 명(明)의 안무유(顔茂齋)가 편찬한 교훈서인 『적길록』(迪吉録)을 바탕으로 하여 나카에 후지키가 마흔에 출판한 여성 대상 교훈서인 『가가미구사』는 총 8개의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제4 교훈이 자식에게 도를 가르침으로써 얻게 되는 행복을 기술한 「교자지보」(教子之報)이다. 문왕, 맹자, 정자(程子)

41) “第一の宝というのは、およそ人生まるるや否、心の内に明德と名付けたる、本来無価の宝珠なり。これを性命の宝とも、または如意宝珠ともいうなり。これは天下第一の宝にして、上天子より下万民にいたるまで、男子・女子のへだてなく、身と同じくそなえ持ちたる宝なれば、聖人といえども多き事なく、凡夫といえども少なき事さらになし。”(『女家訓』一山住正己・中江和恵 編注(1976), 『子育ての書 1』, p. 216.

등등 중국 옛 성현들 어머니의 태교를 소개한 뒤 평을 붙이고 있는 「교자 지보」 내 태교 기술은, 문왕의 어머니 대임(大任, 일반적으로는 太任)의 태교를 소개하면서 시작된다. 그 가운데 태교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태교란 태내에 있을 동안의 가르침이다. 이때의 가르침은 어머니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있다. 왜냐하면 기가 모이고 형태가 단단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물에 감화되어 닳기 쉽기 때문이다. 태교의 마음가짐은 자비·정직을 근본으로 삼고 일시적일지라도 옳지 않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음식 또한 잘 삼가고, 앉음새·몸가짐 또한 바르게 하며 삼가고, 눈으로는 허튼 빛을 보지 않고 귀로는 사된 소리를 듣지 않고 옛 현인·군자의 행적과 효제충신(孝悌忠信)의 고사를 기술한 책자를 읽거나 또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이것이 태교의 대강이다. 태어난 아이가 자태가 보기 좋고 지혜·덕예(德藝) 또한 뛰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어머니 모두의 마음이지만, 태교에 의해 아이의 몸가짐도 좋고 지혜도 뛰어나다는 이치를 모르는 탓에 태교에 힘을 쏟지 않는다. 그러하니, 태교는 아이에게 가르치는 근본이기에, 잘 훈계하고 격려해야만 한다.⁴²⁾

위 내용 중 “사물에 감화되어 닳기 쉽기 때문”에 어머니의 태교가 필

42) “胎教とは、胎内に有るうちの教えなり。この時の教えは、母の心もちと身の行ないにあり。いかんとなれば、氣あつまり形かたまる始めなる故に、物にあやかりやすき故なり。胎教の心もちは、慈悲・正直を本とし、かりそめにも邪なる念を發すべからず。食物をもよくつつしみ、居ずまい・身のはたらきをも正しくつつしみ、目にむざとしたる色を見ず、耳に邪なる声をきかず、古の賢人・君子の行迹、孝悌忠信の故事を記せる草子をよみ、或いは物語をきくべし。これ胎教の大概なり。生める子の、すがた形もよく、智恵・徳芸もすぐれなん事をねがうは、母ごとの心なれども、胎教によって子の容儀もよく智恵もすぐる理をわきまえざるゆえに、胎教に力を用いず。されば、胎教は子に教ゆる根本なれば、よく戒めはげますべきことにこそ。”(『鑑草』—山住正己・中江和恵 編注(1976), 『子育ての書 1』, pp. 207-208.

요하다는 지적은, 비록 '3개월'이라는 태아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시한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산경』을 인용한 『이신보』의 '외상내화' 사상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산서』에서 이어져 내려온 중국 태교의 핵심인 '외상내화' 사상은 다른 여성 교훈서에 기술된 태교 관련 내용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태교는 단순히 군자를 낳기 위한 사상이 아니라 모든 어머니와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 사상으로서 여성 대상의 교훈서에 기술되어 계몽"43)된 것이다.

『히메카가미』는 주자학을 신봉하던 나카무라 데키사이가 소상하게 부도(婦道)에 관해 기술한 책으로, 그 내용은 "『소학』(小學)에 준거하여 부여한 것"44)이다. 권1에서 권12까지를 「술언」(術言)이라고 하며 권13 이상을 「기행」(紀行)이라고 하여 선인의 실제적인 행적을 열거하고 있다. 『히메카가미』에 기술된 태교 관련 내용은 『소학』 「입교」(立教) 편을 바탕으로 한 「술언」 제1에 수록되어 있다. "자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태교를 먼저 한다. 자식이 태내에 있을 때부터 이미 가르칠 도리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 법은 『대대례』(大戴禮) 『열녀전』 등이라는 책에 쓰여 있다. … 대저 자식이 태내에 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는 데 있어 선악이 있음에 아이의 본성이 따라가 다른 것이다"45)라는 기술에서 볼 수 있듯이, 『히메카가미』에 기술된 태교 관련 내용 또한 '외상내화'의 틀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나아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산옥(産屋) 앞에 남성이 바깥을 다스릴 때 몸에 차는 활을 놓고 여자를 낳으면 사람을 시중들 때 몸에 걸치는 수건을 놓는다고 하여 "남녀의 변별"(男女の弁別, p. 186)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라는 구절을 덧붙여 역할 차이에 따

43) 久保田信之(1988), p. 30.

44) 山住正己・中江和恵 編注(1976), 『子育ての書 1』, p. 177.

45) "子を教うるには胎教を先とす。子の胎内に在る時より、已に教うる道ある事をいえるなり。その法、『大戴礼』『列女伝』などいう書に記せり。… おおよそ子の胎内に在る時、母の心に感ずる所善悪あるに因りて、子の本性従いて異り。"(『比売鑑』)―山住正己・中江和恵 編注(1976), 『子育ての書 1』, p. 183.

른 남녀 구별은 하고 있지만, 출산하는 데 있어 남아 선호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노 고켄의 『이나고구사』는 부인의 태교로부터 산전·산후의 양생(養生)을 기술한 책이다. 여치가 한 번에 99개의 알을 낳으므로 부부가 화합하여 자손이 번창함을 비유하는 ‘이나고(蠡斯)라는 서명은, 서문에 따르면 『시경』(詩經) 『중사』(蠡斯) 편에서 따왔다고 한다. “사람의 자식은 태내에 있을 때는 어머니와 일기(一氣)이다. 어머니의 마음상태를 자식 마음에 옮기고 어머니의 몸의 움직임을 자식의 몸에 옮긴다. … 대저 사람의 자식은 타고나기를 마음이 비뚤어지고 행동거지가 나쁜 것은 모두 그 어머니가 회임하고 있을 때 몸과 마음을 근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⁴⁶⁾라고 하여, 산모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태아에게 그대로 감화하니 조심해야 한다는 ‘신소감(愼所感)의 태교 원칙⁴⁷⁾을 기술하고 있다. 이어서, 문왕의 어머니 대임의 예와 『소학』에 수록된 『열녀전』에 기술된 태교에 관한 내용을 인용하여 앓을 때 끄트머리에 앉지 않으며, 설 때 한쪽 다리로 서지 않으며, 이색적인 음식을 먹지 않으며, 함부로 자른 것은 먹지 않으며, 깔개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으며, 『겐지 모노가타리』와 같은 음란한 책을 읽지 않는 등 눈으로는 사된 것을 보지 않으며,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으며, 입으로는 험한 소리를 하지 않는 것을 태교의 법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소학』에 수록된 『열녀전』을 바탕으로 한 『이나고구사』의 태교 관련 기술은 『이신보』에 인용되어 수록된 『산경』의 태교 관련 기술과도 대부분 겹치는 내용이다.

나무라 조하쿠의 『온나초호키 대성』은 전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음

-
- 46) “人の子、胎内にありては、母と一氣なり。母の心のさまを、子の心にうつし、母の身の動きを、子の身にうつす。… およそ人の子、生まれつきて心くせみ身のふるまい悪しきは、みなその母、懐胎のうち、身も心も愼まざるがゆえなり。”(『いなご草』—山住正己・中江和恵 編注(1976), 『子育ての書 1』, p. 222.
- 47) 장정호(2008), 『한·중 전통 태교론(胎教論) 비교 연구』, 『교육사학연구』 제18집 제1호, 교육사학회, pp. 63-64.

며, 제3권인 『회임』 권은 여성 교훈서 중에서 가장 상세하게 의학적인 지식을 원용하며 임신 및 출산 전반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태교’라는 표현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윽고 회임임이 확실해지면 10개월간은 심신의 근신이 제일”⁴⁸⁾이라며 견문하거나 먹고 냄새 맡는 데 조심하며 몸과 마음을 바르게 지녀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라니시키』는 에도 시대 전기의 유학자인 오타카사카 시잔(大高坂芝山, 1647-1713)의 부인인 나루세 이사코가 번주(藩主) 부인의 요청을 받고 쓴 여성 교훈서이다. 13권 구성이며 6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5개 권으로 이루어진 『여칙』(女則)은 9개 항목 중 제7항목 『태양』(胎養)에 태교 관련 내용을 정리해놓고 있다. ‘태양’에 관해서는, “태양은 여성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을 때 그 10개월 동안 잘 근신하고 양생하는 것”⁴⁹⁾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태교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열녀전』의 태교 관련 기술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 뒤 태교지식은 전근대 일본의 대표적인 유교 여성 교훈서이자 교육서로 회자되는 ‘온나다이가쿠’(女大学)를 통해 여성들에게 확산되었다. 일본에 유교적인 여성 교훈서가 등장하게 된 것은 위에서 언급한 여성 교훈서의 등장 시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에도 시대 전기인 17세기 중반이었다. 13세기경 일본에 들어왔지만 그 뒤 오랜 기간 정체해 있던 주자학이 에도 시대 초기 막부의 유관(儒官)이었던 하야시 라잔(林羅山, 1583-1657) 등에 의해 부흥하여 무가 정치의 기반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이에(家)를 존속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루어졌던 것이 근세 사회의 가정교육”⁵⁰⁾

48) “いよいよ懐妊にきわまりたらば、十月が間は心身の慎み第一なり。”(『女重宝記大成』—山住正己・中江和恵編注(1976), 『子育ての書 1』, p. 250.

49) “胎養は、女のただならず気色ばみし時、その十月のあいだ、よく慎み養うをいふなり。”(『唐錦』—山住正己・中江和恵編注(1976), 『子育ての書 1』, p. 270.

50) 石川松太郎 編(1977), 『女大学集』, p. 298.

이었으며 여성에 대한 유교적 교육 또한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18세기에 들어선 뒤 유교적인 여성 교훈서는 더 짧고 쉽게 쓰여 여성을 위한 습자용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독본(讀本)과 습자 기능을 함께 지닌 ‘온나다이카쿠’라는 제명이 붙은 일군의 서책이었다. ‘온나다이카쿠’는 1716년에 출판된 『온나다이카쿠타카라바코』(女大学宝箱)의 본문을 인용해 편찬된 여성 교훈서이자 교육서의 총칭이다. 공통된 골자는 가이바라 에키켄(貝原益軒, 1630-1714)이 1710년 81세 때 내놓은 『와조쿠도시쿤』(和俗童子訓) 권5에 수록된 「교여자법」(教女子法⁵¹)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여성 교훈서 및 교육서는 교토, 오사카(大阪), 에도의 유명 출판업자 등을 통해 유통된데다, 본문은 한자와 히라가나(平仮名)를 섞어 쓰고 한자에는 음을 달아 읽기 쉽게 만들고 삽화를 넣어 이해를 도와, 읽으면서 내용을 익힘과 동시에 문자 연습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서민층에 쉽게 보급되었다. 주된 내용으로는 “교훈, 문예적 교양, 실용적(가사·육아) 지식, 여성의 제 신분·직종에 관한 지식을 포함해 구성”⁵²되었다.

이와 같은 ‘온나다이카쿠’ 가운데 태교에 대한 기술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에도 시대 후기의 『신센온나야마토다이카쿠』(新撰女倭大学, 1785)와 메이지 시대(明治時代, 1868-1912) 초기의 『신센온나다이카쿠』(新撰女大学, 1882)이다. 이를 통해 에도 시대 후기 여성들 사이에서도 태교지식이 폭넓게 유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쿠호쿠 쇼코(洛北唱子)가

51) 18개 조에 걸친 「교여자법」에 담긴 여성교육의 내용은 크게 수신(修身) 교육과 가사 교육, 삼종칠거 등의 유교적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윤리 교육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가이바라 에키켄의 「교여자법」에 관해서는, 李美淑(2009), 「『尤庵先生戒女書』と『教女子法』—韓国と日本における儒教的な女性教育—」, 『女性百年—教育・結婚・職業—』(『女性百年』刊行委員会 編, 東北大学出版会, pp. 97-113에서 고찰한 바 있다.

52) 横田冬彦(1995), 「『女大学』再考—日本近世における女性労働」, 『ジェンダーの日本史 下』(脇田晴子 他 編, 東京大学出版会, p. 367.

편찬한 『신센은나야마토다이가쿠』는 9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자와 히라가나가 섞여 있다. 그중 일곱 번째 항목으로 기술된 태교지식은, “회임해서는 거동을 할 때도 조심하고 식사 등을 할 때도 추접해 보이는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눈으로는 볼꼴사나운 것을 보지 않고 잠시라도 음곡(音曲) 등이 음란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지 않으며 자주 박식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 진정한 도리를 여쭙는 게 좋다. 이처럼 어머니가 깊이 삼간다면 태어나는 아이는 현명하다. 그저 어머니의 근신에 의해 좋고 나쁨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⁵³⁾며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내용은 17세기에 앞서 나온 여성 교훈서의 태교지식과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26개 조의 부인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센은나다이가쿠』는 니시노 고카이(西野古海)가 쓴 책으로, 그중 태교지식은 여덟 번째 항목에 기술되어 있다. 구체적인 태교 방법은 『신센은나야마토다이가쿠』와 대동소이하지만, 그 전제로 기술되어 있는, “아이를 기르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은 본디 타고난 좋고 나쁨에 의하지 않고 부모가 가르치기 나름으로, 비유적으로도 ‘붉은 글자와 뒤섞이면 붉어진다’고 한다. 그리하여 옛날에는 태교라고 하여 태내의 아이를 가르치는 법이 있었다”⁵⁴⁾에는 주목할 만하다. 사람의 자질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태내에 있을 때부터의 교육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견해는 ‘본성’보다는 태내에 있을 때부터의 ‘양육’에 중점을 둔 관

53) “懐妊しては、立居にも心をつけ、食事なんども、むさとしたる物は食すべからず。眼にあさましきものを見ず、仮にも音曲などの姪声なるものを聞かず、よく物知る人に近づき、其の信の道をききたまうべし。此くのごとく母の慎みふかき時は、生まるる子、賢し。唯母の慎みによりて善悪ありとするべきなり。”(『新撰女倭大学』—石川松太郎 編(1977), 『女大学集』, p. 65.

54) “子を育つる事は、最大切なることと心得べし。人は生質の善悪によらず、父母の教え次第なるものにて、比喩にも、「朱に際われば赤くなる」といえり。されば往昔は胎教として、胎内の子を教うる法あり。”(『新撰女大学』—石川松太郎 編(1977), 『女大学集』, p. 190.

점55)으로서 『이신보』 이래 이어져 내려온 태아의 변화 가능성, '외상내화'에 바탕을 둔 태교관을 가장 명확하고 단호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에도 시대 말기에는 『에이타이다이갓쇼반레키』(永代大雜書萬曆)라는 일종의 백과사전과 같은 책이 전국적으로 유포되었는데, 그 책 속에 수록된 「회임 몸가짐 모범」(懷妊身持鑑)이라는 항목에는 '태교'라는 표현을 사용해 산모의 행동거지에 관한 다방면의 수칙이 기술되어 있다⁵⁶⁾고 한다. 즉, 『이신보』에 수록되어 일본에 수용된 중국의 태교지식은 "에도 시대에 들어와 유교가 보급됨에 따라 무사 계급에 확산되어 여성 교훈서로 불리는", "계몽적인 서적을 통해 일반화"⁵⁷⁾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중반의 에도 시대에 이르면 태교는 도시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도 퍼져나가 여성 교양으로 뿌리 내렸던 것이다.

임신과 출산은 에도 시대의 '이에' 제도 아래에서는 대를 이을 후사를 얻는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일이었고, 이에 따라 더 나은 아이를 낳기 위하여 태교 또한 중시되었다. 하지만 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섭관 정치체제 하의 헤이안 시대 귀족사회에서도 집안의 영화를 이어나갈 존재로서 남아든 여아든 관찮은 자식은 필요하였다. 하지만, 헤이안 시대 때의 임신·출산 관련 기술을 보면 순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태교에 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이는 결국 의학서에서 출발한 태교가 유학자들에 의해 중국에서 개념화된 뒤, 일본에는 유학이 널리 확산된 에도 시대 때에 이르러 비로소 여성 교훈서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교육되고 홍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태교가 기술된 여성 교훈서 및 교육서를 통해 지적할 수

55) 태교를 둘러싼 본성·양육 논쟁에 관해서는, 이경하(2014), 「본성·양육 논쟁으로 본 『태교신기』—전통 태교론 및 현대 유전학과의 비교—」를 참조 바람.

56) 鎌田久子 他(1990), 『日本人の子産み・子育て—いま・むかし—』, 東京: 勁草書房, p. 101.

57) 鎌田久子 他(1990), p. 101.

있는 점은 네 가지이다.

첫째, 명의 교훈서인 『적길록』을 바탕으로 한 『가가미구사』, 주자의 『소학』 「입교」 편을 바탕으로 한 『히메카가미』, 『소학』에 수록된 『열녀전』을 바탕으로 한 『이나고구사』와 『가라니시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에도 시대 여성 교훈서에 기술된 태교 관련 내용은 중국의 유교 문헌, 특히 『소학』에 실린 『열녀전』의 태교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기술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여성 교훈서 및 교육서에 나타난 태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3개월’이라는 태아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시한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어머니의 보고 듣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태아가 감화함으로써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산경』을 인용한 『이신보』의 ‘외상내화’ 사상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경』의 ‘외상내화’는 물론이고 『열녀전』의 ‘신소감’ 또한 『태산서』의 ‘내상성자’와 그 본질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에도 시대 여성 교훈서를 통해 일본에 확산된 태교지식 또한 중국 당·송 때 의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중국의 핵심 태교론인 ‘외상내감설’(外象內感說)⁵⁸에 입각하여 태교론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여성 교훈서 및 교육서에 나타난 전근대 일본의 태교지식에서는 조선 시대와는 달리 남아 선호 사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이신보』 권24 제4 「변녀위남법」 및 『산세이루이주쇼』와 『돈이쇼』와 같은 의학서에 ‘전녀위남법’에 관한 기술은 존재하지만, 『히메카가미』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 교훈서에서는 남녀의 역할 차이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녀위남법’ 등 남자를 선호하는 기술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은 헤이안 시대의 출산문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남녀 선별 선호에서도 그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태교는 어디까지나 “유교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순종과 겸양의 덕목

58) 장정호(2008), p. 65.

에 기반한 생활을 임부에게 요구하여 태교를 중시하는 것이며, 본래 어리석은 존재인 여성에게 어떻게 해서 건전한 후사를 낳게 할 것인가가 테마⁵⁹⁾라는 태교의 본질은 희석되지 않는다.

넷째, 결국 전근대 일본의 태교지식은 『이신보』라는 의학서⁶⁰⁾에 수용된 『산경』 등 중국 의학서의 태교지식을 받아들인 뒤 에도 시대에 들어와 여성 교훈서와 『온나다이가쿠』 등의 유교적인 여성 교육서를 통해 확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¹⁾ 이는 결국 전근대 일본에서 태교지식이 확산된 것이 유교의 확산에 의해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며, ‘태교’라는 지식이 유교문화권의 산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5. 맺음말

이상으로서, 일본 고전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전근대 일본의 태교지식의 수용과 전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근대 일본의 태교지식은 10세기 후반 헤이안 시대 때 중국의 의학서 등을 인용하여 저술한 의학서인 『이신보』를 통해 처음 들어왔으며, 그 뒤 에도 시대 때 중국의 『소학』이나 『열녀전』 등을 바탕으로 한 여성 교훈서와 ‘온나다이가쿠’ 등의 유교적인 여성 교육서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59) 総合女性史研究会 編(2010), 『時代を生きた女たち』, 東京: 朝日新聞出版, p. 122.

60) 전근대 일본 의학서에 기술된 태교 관련 기술은 히라노 주세이(平野重誠, 1790-1867)의 가정백과의학서인 『보카스치』(病家須知, 1834)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総合女性史研究会 編(2000), 『史料にみる日本女性のあゆみ』, 東京: 吉川弘文館, pp. 122-123.

61) 全瓊樂(1989), p. 46에는 “일본에 있어서도 중국의 태교설을 육아의 일부로서 위치지어 그 중요성을 논하고 있으며, 고전적 태교설에 의학적인 요소를 도입하였다”고 지적되어 있지만, 전근대 일본의 태교지식이 『이신보』라는 의학서에 처음 수용되어 에도 시대의 여성 교훈서로 확산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확인할 수 있었다. 『이신보』를 통해 태교지식이 수용된 지 600여 년 뒤인 17세기 에도 시대 전반에 태교지식이 확산된 것은 일본의 주자학 도입에 따른 유교적인 여성교육에 힘입은 바가 크다. 임신과 출산은 에도 시대의 '이에' 제도 아래에서는 대를 이을 후사를 얻는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일이었고, 이에 따라 더 나은 아이를 낳기 위한 태교 또한 중시되었다. 이러한 전근대 일본의 유교지식의 수용과 전개는 '태교'라는 지식이 유교문화권의 산물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또한, 전근대 일본의 태교지식의 핵심은 『산경』을 인용한 『이신보』의 '외상내화' 사상으로 보이며, 이는 『태산서』의 '내상성자'와 그 본질에서 차이가 없다. "사람은 본디 타고난 좋고 나쁨에 의하지 않고 부모가 가르치기 나름"이라며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19세기 후반의 『신센온나다이카쿠』의 한 구절은 『이신보』의 '외상내화'가 지극히 강조된 표현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전근대 일본의 태교지식에서는 『이신보』 권24 제4 『번녀위남법』에 『병원론』, 『산경』 등의 중국 의학서를 인용한 여아를 남아로 바꾸는 여러 방법이 기술되어 있고 가마쿠라 시대의 『산세이루이주쇼』와 『돈이쇼』와 같은 의학서에도 '전녀위남법'에 관한 기술이 있지만, 그것이 조선 시대와는 달리 남아 선호 사상으로 후대에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에도 시대 여성 교훈서의 태교 기술을 분석해보았을 때, 남녀의 역할 차이를 전제로는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남아를 선호하는 기술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그 방증이다. 태교의 본질이 유교가 요구하는 여성상을 산모에게 요구하고 건전한 후사를 여성이 낳을 수 있게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태아의 성별을 두고 우열을 가리지 않는 전근대 일본의 태교 관련 기술은 일본 나름의 출산문화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주목할 만하다. 섭정·관백 정치체제를 배경으로 하는 헤이안 시대의 남녀 선별 선호에서 그러한 의식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점은 동아시아 유교문화와 교류하면서도 일본 나름의 문화를 구축해나가는 전근대 일본문화의 일단(一端)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자 료】

미치쓰나의 어머니 지음·이미숙 주해(2011), 『가게로 일기: 아지랑이 같은 내 인생』, 파주: 한길사.

丹波康頼 撰·槇佐知子 訳注(1995), 『医心方』 卷二十二, 東京: 筑摩書房.

_____ (1994), 『医心方』 卷二十四, 東京: 筑摩書房.

藤岡忠美・中野幸一・犬養廉・石井文夫 校注・訳(1994), 『和泉式部日記 紫式部日記 更級日記 讃岐典侍 日記』,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26, 東京: 小学館.

山住正己・中江和恵 編注(1976), 『子育ての書 1』, 東洋文庫 285, 東京: 平凡社.

山中裕・秋山虔・池田尚隆・福長進 校注・訳(1995), 『栄花物語 ①』,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31, 東京: 小学館.

石川松太郎 編(1977), 『女大学集』, 東洋文庫 302, 東京: 平凡社.

市古貞次 校注・訳(1994), 『平家物語 ①』,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45, 東京: 小学館.

阿部秋生・秋山虔・今井源衛・鈴木日出男 校注・訳(1998), 『源氏物語 ⑥』,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25, 東京: 小学館

_____ (1996), 『源氏物語 ④』, 新

編日本古典文学全集 23, 東京: 小学館.

_____ (1995), 『源氏物語 ②』, 新

編日本古典文学全集 21, 東京: 小学館.

【논 저】

김성수(2014), 『조선 전기 태교론(태교론)의 수용과 전개』, 『인문논총』 제71권 제1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이경하(2014), 『본성-양육 논쟁으로 본 『태교신기』—전통 태교론 및 현대 유전학과의 비교—』, 『인문논총』 제71권 제1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_____ (2013), 『불임을 치료하고 아들 낳는 비법을 기록하다: 『규합총서』와 『태교신기』가 전하는 임신과 출산』, 『실용서로 읽는 조선』(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 글항아리.
- 이미숙(2013), 『전근대 일본의 ‘출산 부정’과 ‘여성 부정’—일본 고전 텍스트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70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장정호(2008), 『한·중 전통 태교론(胎教論) 비교 연구』, 『교육사학연구』 제18집 제1호, 교육사학회.
- 周一謀 지음·김남일, 인창식 옮김(2000), 『고대 중국의학의 재발견』, 서울: 범인문화사.
- 鎌田久子 他(1990), 『日本人の子産み・子育て—いま・むかし—』, 東京: 勁草書房.
- 久保田信之(1988), 『江戸時代の人づくり—胎教から寺子屋・藩校まで』, 東京: 日本教文社.
- 李美淑(2009), 『『尤庵先生戒女書』と『教女子法』—韓国と日本における儒教的な女性教育—』, 『女性百年—教育・結婚・職業—』(『女性百年』刊行委員会 編), 東北大学出版会.
- 尾留川方孝(2009), 『平安時代における穢れ観念の変容—神祇祭祀からの分離—』, 『日本思想史学』 第41号, 日本思想史学会.
- 服藤早苗(1998), 『平安朝女性のライフサイクル』, 東京: 吉川弘文館.
- _____ (1991), 『平安朝の母と子』, 東京: 中央公論社.
- 杉立義一(2002), 『お産の歴史』, 東京: 集英社.
- 西川勢津子(1992), 『お産の知恵』, 東京: 講談社.
- 新村拓(1996), 『出産と生殖観の歴史』, 東京: 法政大学出版局.
- 長谷部英一(2004), 『中国における胎教の思想』, 『技術マネジメント研究』 4, 横浜国立大学技術マネジメント研究学会.
- 全玖樂(1989), 『胎教に関する比較教育文化的考察—近世(李朝、江戸時代)の女訓書を中心に—』, 『教育学論集』 15, 大阪市立大学文学部教育学研究室.
- 総合女性史研究会 編(2010), 『時代を生きた女たち』, 東京: 朝日新聞出版.
- _____ (2000), 『史料にみる日本女性のあゆみ』, 東京: 吉川弘文館.
- 横田冬彦(1995), 『『女大学』再考—日本近世における女性労働』, 『ジェンダーの日本史 下』(脇田晴子 他 編), 東京大学出版会.

원고 접수일: 2014년 3월 31일

심사 완료일: 2014년 4월 18일

게재 확정일: 2014년 4월 30일

要旨

前近代日本の胎教知識の受容と展開

- 日本古典テキストを中心に

李美淑*

本稿は、日本の古典テキストにおける胎教関係の記述を分析し、前近代日本の胎教知識が中国からどのように受容され展開されていくのかを考察することによって、胎教知識が政治社会制度の変化と相まってどのように変容されていくのかを考えてみた論である。日本において最初の胎教知識の様相は『産経』、『千金方』、『養生要集』、『膳夫経』の胎教関係の記述を引用し著された『医心方』卷二十二第二の『任婦修身法』を分析し考察してみた。中国最古の産婦人科専門書である『胎産書』の胎教関係の記述に基づいている『医心方』の胎教関係の記述の核心は、胎児は「三ヶ月」までは未だ男女の性別が決まっていない状態でありその資質も決っていないため、母の行動と心構えによってその性向と資質、さらには性別も変化できるという「外像内化」思想である。このような胎教観は以後江戸時代の女訓書と儒教的な女性教育書においても確認できる。

なお、前近代日本の胎教知識において注目すべきは、『医心方』卷二十四第四に「変女為男法」が紹介されているのにも関わらず、それが

* ソウル大学校人文学研究院 HK研究教授

朝鮮時代とは異なり男児を優先する思想として後代にまで繋がっていないという点である。このことは江戸時代の女訓書や女性教育書から男児を選び好む直接的な記述を読み取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点からも確認できる。儒教が要求する女性像を産婦に要求し、よりよい後嗣を女性に産んでもらうという胎教の本質を否定するわけではないものの、胎児の性別の優越を見分けない前近代日本の胎教関係の記述は日本ならではの出産文化を反映する指標として注目すべきであろう。摂政・関白政治体制を背景にする平安時代の男女選別の出産文化からその端初は確認できる。このことは東アジアの儒教文化と交流しつつ日本ならではの文化を構築していく前近代日本文化の一端として見ることもできよう。その後江戸時代において中国の『小学』や『列女伝』などに基づいた女訓書や『女大学』などの儒教的な女性教育書が広まることによって胎教知識は社会全般に拡大することになる。

つまるところ、前近代日本の胎教知識は日本の古典テキストにおける胎教関係の記述を分析・検討したとき、『医心方』という医書に収められた『産経』などの中国医書の胎教知識を受容し、江戸時代にいたって女訓書と『女大学』などの儒教的な女性教育書を通して広まったということが分かる。このことは前近代日本において胎教知識の拡散は儒教の拡散によるところが大きいことを示しており、『胎教』という知識が儒教文化圏の産物であることを示す指標にもなる。

